



###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득오실이 「모죽지랑가」를 지은 까닭은?

# 배척받는 삼국 통일주역 아픔 달래

#### 1. 통일 이후 화랑의 위상

통일신라는 일찍이 합병한 가야세력과 연합하여 삼한 일통을 이룬 이후 '한(韓)민족'으로 거듭 난다. 무열왕과 문무왕의 통일 이후 국운은 드높아지고 태평성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의 세력을 완전히 밀어낸 문무왕 말기부터 점차 왕권의 위기가 다가왔다. 박석김(朴昔金) 삼성(三姓)의 순번으로 왕위에 올랐던 신라는 법흥왕 이래 골품제를 본격화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성골과 진골 및 왕족과 왕비족 사이의 종래 투쟁에서 점차 진골 귀족 내부의 권력 쟁탈전으로 정치 지형이 이동하였다. 일찍이 문무왕은 이것을 예견하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잠시도 왕위를 비우지 말고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태자 신문(神文, 淨神)의 즉위식을 치르도록 유언을 남겼다. 그만큼 왕위의 정상적인 승계가 대단히 불안했던 상황이었다. 681년 문무왕이 7월 1일에 세상을 떠나자 일주일 만인 7월 7일에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7월 10일에 왕은 부왕의 장례를 치르고 동해바다 큰 바위 위에다 뼈를 묻었다.

신문왕은 8월에 상대등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을 도와 삼한일통 전쟁의 중심에 섰던 장수이자 장인이었던 소관 김흠돌(金欽突)이 파진찬 흥원(興元)과 대야찬 진공(眞功)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진골 가운데 왕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인물이었다. 김흠돌은 자신의 사위인 신문왕을 밀어내고 직접 왕위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흠돌이 앞장을 서고 파진찬과 대야찬이 힘을 합쳤다. 거기에다가 당시 군권을 잡고 있던 병부령 이찬 군관(軍官)까지 합세한 대규모 반란이었다. 하지만 이를 예견한 신문왕은 조기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결과 김씨의 딸에게서 태어난 보천(寶川, 출가)과 효명(孝明, 출가한 뒤 성덕왕에 오름) 및 부군(副軍, 뒤에 출가한 無相?)은 출가하였다. 이 일로 인해 김유신 계열의 사랑부 진골 귀족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가까스로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고 왕권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반란이 진압된 이듬해(682년) 5월에는 동해용이 만파식적과 흑옥대를 비롯했다. 진평왕대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옥대의 권위를 재현한 흑옥대가 다시 등장하였다. 왕실은 문무왕 승하 뒤 해(喪)가 없던 7일간 캄캄한 밤이 계속되자 문무왕과 김유신의 합력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만파식적을 내세웠다. 만파식적은 부왕인 문무왕과 통일의 상징인 김유신이 힘을 합하여 나라를 수호하여 갖은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상징적 신물(神物)이었다. 김흠돌의 난으로 그를 따랐던 김유신의 직계 혹은 가까운 인척이었던 진골 귀족들이 제거되자 죽은 김유신은 신문왕에게 협조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왕실은 죽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다시 환기시키며 만파식적을 다시 신표(信標)로 내세워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흑옥대 기사에 등장하는 태자 이공(理恭, 理洪)은 김흠돌의 딸(제1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보천과 효명 및 부군이 밀려나자 계비인 김흠운(金欽運)의 딸(제2 神穆王后) 사이에서 태어나 뒤날 효소왕(孝昭王)으로 즉위하는 인물이다.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승하하자 6살의 어린 이공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효소왕은 대현살찬(大玄薩)의 아들 부례랑(夫

禮郎)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그는 구슬신을 신은 1천의 낭도 중에 특히 안상(安常)과 매우(梅) 친했다. 천수 4년 계사년(693) 3월 낭도를 이끌고 금란(金蘭)에 유람을 갔다가 북명(北溟)에 경계에 이르러 오랑캐(말갈)에게 잡혀 끌려갔다. 때마침 상사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廟)를 덮었다. 왕이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 창고를 점검하니 창고 안의 거문고와 피리 등의 두 보물이 없어졌다. 4월에 왕은 거문고와 피리를 얻는 자는 상으로 한 해의 세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5월 15일에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의 대비상(大悲像) 앞에 나아가 여러 저녁 치성을 드렸다. 홀연히 향탁(香卓) 위에서 거문고와 피리 등 두 보물을 얻었고, 낭과 안상 두 사람이 불상 뒤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만파식적은 '만파파파식적'이라 불렸다. '효소왕 대 죽지랑' 기사는 효소왕 즉위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 2. 죽지랑과 득오곡

제32대 효소왕 대에 (朔州/春川都督使를 역임하였던 遼宗公의 아들인) 죽만랑의 낭도 가운데 득오(得烏, 得谷) 급간(級干, 6두품 출신, 제9관등)이 있었다. 그는 (누런 종이에 쓴 명부인) 풍류황권(風流黃券)에 이름을 올려놓고 남마다 직무에 나아갔다. 한 열흘을 보이지 않자 죽만랑이 그 어머니를 불러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소?" 어머니가 말했다. "당전인 모랑부의 익선 아간이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차출시켜 급히 달려가느라 미처 나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낭이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온 공무로 거기를 갔다면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공무로 갔으니 찾아가 대접해야겠소." 이에 딱 한 합과 술 한 동이를 가지고 좌인(左人, 갓지, 종)을 데리고 갔다. 낭도 1백 37명도 모두 의례를 갖추어 따라갔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다. "득오실은 어디 있느냐?" 문지기가 말하였다. "지금 익선의 밭에서 전례대로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랑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 간 술과 떡을 그에게 먹이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득오와 함께 돌아오려 하니 익선이 굳게 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리(使) 간진(假珍)이 추화군(推火郡, 밀양군)에서 조세 30섬을 거두어 성안으로 수송하다가 죽지랑의 부하(선비)를 중히 여기는 풍모를 아름답게 여기고 용통성 없는 익선을 아비하게 생각하여 가지고 가던 배 30섬을 주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진절(珍節) 사지(舍知)가 타던 말과 안장(鞍裝)을 주니 그제야 허락하였다. 조정에서 화주(花主, 風月主)가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다가 그 추한 짓을 씻어 주려 하였다. 익선이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그의 말아들을 대신 잡아갔다. 때는 동짓달이라 극히 추운 날이었다. 성 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키다 익선의 아들을 잃어 죽게 만들었다.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모랑리 사람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 버리고 다시는 공적 기관에 들이지 않았고, 검은 옷(승복)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슬러가 된 자가 있어도 종 치고 북 울리는 절에는 들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을 내려 간진의 자손을 평정호손(評定戶孫/長)으로 삼아 드러내어 칭찬하였다. 이때 원측법사(圓測法師)는 해동의 큰 스님이지만, 모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95(오봉산 주사암) '모죽지랑가'의 배경이 된 부산성의 지역적. 드라마 '선덕여왕'과 '동이'의 촬영지이기도하다.

#### 신라6부중 양대세력 모랑·사랑부 왕비 배출 모랑부, 여왕시기 약해져 신문왕대 김유신계 견제위해 결탁 효소왕대 모랑부 강경정책 펼쳐

랑리 사람이므로 승적을 주지 않았다.

14~5세에서 17~8세의 미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 내의 화랑들은 1명의 승려낭도의 보좌 아래 각기 200~300여명의 낭도를 거느릴 수 있었다. 술공공의 아들로서 젊은 시절 화랑이었던 죽지랑은 커서는 벼슬길로 나아가 부사령관이 되어 김유신과 함께 삼한 일통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진덕-무열-문무-신문왕대에 걸쳐 4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며 나라를 안정시켰다. 통일의 주역이었던 그는 효소왕 시절에는 퇴역한 화랑이 되어 있었다. 그런 죽지랑이 말년에 자신의 낭도 137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따르던 낭도인 득오가 자신의 양해도 없이 추화군(富山城)의 창고지기로 가버리자 떡과 술을 싸들고 면회를 갔다. 그런데 아간(阿干, 제6관등) 익선이 은퇴한 노화랑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청한 휴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확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익선이 믿었던 구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죽지랑이 득오를 면회한 것은 발일이 한창이던 때이고, 간진이 추수한 곡식을 실어 나르던 때는 음력 8~9월 전후이다. 드리고 달아난 익선 대신 받아들여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다 잃어 죽게한 것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11월 말경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익선의 아들이 죽었던 시점까지는 적어도 두 달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죽지랑은 이 망신스런 사건을 풍월주인 화주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풍월주는 익선의 스캔들을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익선을 잡아오게 하였고 대신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동사(凍死)를 시켰다. 그 뒤 왕에게 보고된 뒤에야 모랑리 출신으로서 현직에 있는 자들을 모두 내쫓았다고 앞으로 승려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려가 된 자들은 큰 절 근처에 일선도 못하게 하였다. 뒤이어 나오는 원측법사는 신라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한 장안에서 활동했던 고승 원측이 아니라 모랑리 출신의 원측(?+元測)으로 짐작된다.

#### 3. 「모죽지랑가」의 해석

신라 6부 중 가장 강력했던 모랑부와 사랑부는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모랑부는 진흥왕비 사도부인과 범흥왕비 파도부인 등 신라 중고시대를 배출한 박씨 왕비를 배출한 본거지였다. 반면 사랑부는 대대로 김씨 왕족과 김유신 계열을 따르는 진골 귀족들의 본거지였다. 그런데 성골 남자가 다하지[聖骨男盡] 성골 여인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다. 김유신의 누이 문화가 무열왕비에 오른 이후 모랑부는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왕비족을 배출했던 모랑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런데 '효소왕대 죽지랑' 조의 기록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문왕 원년에 정인인 김흠돌의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은 김씨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모랑부와 모종의 결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모랑부 소속의 익선은 사랑부 소속의 죽지랑에게 망신과 수모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왕이 승하하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효소왕은 특별한 공훈도 없고 부친의 품계도 높지 않은 부례랑을 국선(國仙)으로 임명하면서 갑자기 화랑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

랑부 출신인 김흠돌의 난으로 위기에 봉착한 신문왕은 모랑부 세력과 결탁하여 사랑부 진골 세력의 준력을 중심부에서 밀려났고 급기야는 몰락하였다. 하지만 익선의 스캔들 이후 효소왕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바꾸었다. 부왕 신문왕대에 맺은 제휴를 믿고 안하무인하는 모랑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래 모랑부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연은 신라의 삼한 일통 이후 통일의 주역들이 받았던 냉대를 기술함으로써 효소왕대의 안타까움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통일의 주역들에 대한 여러 기사에 투영된 일연의 문체(文勢)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죽지랑의 부하에 대한 사랑과 주군에 대한 득오실의 죄의 의리가 담긴 「모죽지랑가」는 더욱더 울림이 커진다.

"지난 봄 그대며/ 모든 것이 시름이라/ 아름다운 모습에 주름지니/ 눈물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리. 낭이여, 그리운 마음 가는 길에/ 축이 우겨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 (양주동 역) "지난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음 이 시름/ 정각(靜閣)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험하여/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게 어찌 이루리// 낭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으리." 득오실은 "발일이 한창인 봄날에 자신을 면회와 휴가를 청해준다 수모를 당한 주군을 그리워 하면서" 찬가를 시작하고 있다. 삼한 일통을 위해 한 몸을 바친 통일 영웅 137명을 이끌고 떡과 술을 준비하여 서라벌에서 밀양군까지 면회를 온 왕년의 재상 죽지랑이 일개 아간에게 수모를 당하며 얼굴에 남긴 주름들을 떠올리며 그를 '눈물릴 사이'인 '한순간'(瞬間)에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죽지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으로 지내셨는데 익선의 스캔들로 인해 상심이 크더니 안타깝게도 그 즈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낭도 득오실은 이 시에서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지난날의 일로 이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회상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미륵의 화신이자 삼한 일통의 주역이였으며 4대에 걸쳐 재상을 하면서 보여준 고결한 인품과 당당한 결기를 기리고 있다. 나아가 주군을 그리는 마음은 변치 않고 이어져 자신도 끝내 '축이 우겨진 마을에 잘 밤이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모죽지랑가」는 신문왕에서 효소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화기에 평생을 당당한 결기와 고결한 인품으로 살아온 주군 죽지랑을 기리는 낭도 득오실의 추모가이자 찬가였다. 뿐만 아니라 삼한일통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 화랑도들의 정신과 품격을 기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선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 김원진, 『한기해독법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 정민, 『불국토를 꿈꾼 그들』(문학의문학, 2012).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성) (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 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 2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 3 근저당설정비 ☞ 면제
- 4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 5 단체명의, 중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점1지점 054)282-9601  
점2지점 054)282-9602

## 사찰화재보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사)동국불교조계종

### 입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 허가 2013-4호 사단 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중도로써 초빙하고자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스 051)256-8005  
직통 010-3262-1005

## 謹 啓

오봉사와 서원사의 회주스님이신 효관 큰스님께서, 건강하셨으나 3월 6일 오전 10시경에 식탁에서 아침공양을 하시다가 앉으신 채로 열반에 드시어, 서원사와 오봉사에서 문상을 받고, 3월 10일 오봉사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효관큰스님의 상에 문상하여 주신 많으신 큰스님들과 불자여러분 그리고 지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큰스님의 사십구제가 다음과 같이 있음을 알립니다.

불기 2557년 4월 23일 오전 10시  
기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입니다.

- 장소 : 오봉사
- 전화 : 031)834-2140

※ 오봉사에서는 사십구제까지 문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도대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 합장